

한 · 일 축제 문화 비교 연구*

- 천안흥타령축제와 가고시마 오하라마츠리를
중심으로 -

유기준**

目 次

1. 머리말
 2. 축제의 유래 및 성격
 3. 한 · 일 축제 문화 운영현장의 비교
 4. 맺음말
-
-

1. 머리말

최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며 지역의 특성과 문화전통을 문화 그 자체로서만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경제적 가치창출에 주목하면서 문화산업이라는 용어까지 탄생되기에 이르렀다. 그만큼 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가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활용하여 여러 형태로 관광자원화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축제의 개최이다. 축제를 관광지 계획과 연관시킬 경우 축제는 지역의 매력물로서, 이미지 창출자로서, 관광지 시설 활성화의 자극제로서, 관광지 개발의 촉매자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¹⁾. 또한 축제는 지역전통문화의 현재적 계승뿐만 아

* 이 논문은 2005년도 하반기 공주대학교 연구년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관광학부 관광경영학 전공 교수

1)민병호외(2000), 「지역축제의 서비스품질 개발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제4권 제1호, p.198

나라 지역민을 단합시키는 요소로 그리고 세계인들에게는 지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축제는 한 지역이 예전부터 현재까지 지니고 있는 총체적 문화적 역량과 문화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축제에 대한 연구는 최근 다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일간 축제 문화의 비교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일축제문화의 비교연구는 한·일양국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한·일축제문화의 비교연구는 마츠리와 도시축제라는 부제를 달고 일본의 마츠리와 한국의 축제를 비교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축제가 되어야한다며 도시축제에서 고려할 것으로 제의성, 가장행렬, 놀이마당의 필요성 등을 제안한 최인학의 연구와 한·일간 축제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윤병섭의 연구와 천안홍타령축제의 개선방안의 연구를 위하여 일본의 요사코이축제의 특징을 분석한 이덕구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한·일축제문화의 본질과 변화양상을 고찰하면서 한·일축제문화의 같음과 다름이 나타나는 원인을 한·일 양국민의 종교적심성의 차이, 축제주관집단의 차이, 신을 맞이하는 방법의 차이 등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분석한 유기준의 연구 등이 있다.²⁾ 그러나 한·일축제운영현장의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요소에 대한 비교분석은 부족하였다. 이에 축제의 주제가 ‘춤’이라는 공통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나 축제운영방식에서는 차이를 지니고 있는 한국의 천안홍타령축제³⁾와 일본의 가고시마오하라마츠리((鹿兒島おはら祭, 이하 오하라마츠리)⁴⁾의 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축제의 유래 및 성격을 살펴보고 한·일축제문화의 운영현장을 비교분석하려 한다.

2) 최인학(1996), 「일본의 마츠리와 한국의 축제 비교」, 『일본연구』 제1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윤병섭의(2002), 「한·일간 축제의 현상에 관한 비교연구」, 『문화관광연구』 제4권 제2호, 한국문화관광학회

이덕구(2004), 「천안홍타령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 ‘요사코이마츠리’의 특징분석을 통하여」, 『문화관광연구』 제6권 제2호, 한국문화관광학회

俞起濬(2007), 「日·韓祭)文化の比較研究」, 『일본연구』 제3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3) 비교연구대상인 천안홍타령축제는 ‘천안홍타령축제2007’이다. ‘천안홍타령축제2007’은 필자가 평가 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축제가 거행되는 기간(2007.10.3.-10.7.) 뿐만 아니라 축제의 시작과 종료가 되기 전후 1주일간의 현황 및 관련 자료를 관찰 분석하고 천안홍타령축제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기술한 것이다.(천안시, 『천안홍타령축제2007평가보고서』, 2007. 11.) 이에 대한 평가보고회는 천안시청 상황실에서 거행되었고(2007.11.30.), 그 결과를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에서 주최한 천안홍타령축제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하였다(2007.12.21.).

4) 비교연구대상인 오하라마츠리의 연구는 필자가 일본의 가고시마대학에서 1년간(2006.8.1-2007.7.30)의 연수기간 중 제55회(2006. 11.2-11.3)오하라마츠리를 직접 참관하며 수집된 자료와 현지관계자와 인터뷰를 토대로 기술한 것이고 변화의 양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제56회(2007. 11.2-11.3)오하라마츠리에는 공주대학교 학생들과 같이 참가하였다.

춤을 테마로 하고 있는 한·일양국의 축제문화의 비교연구는 축제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또한 축제를 통하여 지역전통과 문화적 자산들을 재발견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창출하여 지역민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까지 꾀하려는 축제운영관계자들에게 축제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축제에서 필요한 신명나게 같이 어우러지는 시간의 마련이 춤으로 가능하고 또한 비언어적인 매체를 사용하는 춤은 음악, 음식 등과 더불어 세계화하여 많은 방문객들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축제의 좋은 소재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2. 축제의 유래 및 성격

축제에 해당하는 영어는 페스티벌(Festival) 그리고 카니발(Carnival) 등이 있다. 페스티벌은 한국의 축제에 가까운 개념으로 예술적요소가 가미된 제의(祭儀)를 의미하고 카니발은 예전 유럽제국에서 대개 술과 육식을 끊고 수도하기 직전 전날 밤에 거행되는 기독교적 축제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축제(祝祭)의 축(祝)자도 경축이나 경하의 뜻 이외에 신에게 빌고 원한다는 의식의 뜻이 들어있다. 마츠리(祭り)도 신(神)이나 영(靈)을 맞이해서 그 영을 모신다음 보낸다는 것 즉 영신(迎神)과 송신(送神)을 뜻하는 것으로 초자연적인 존재를 영접해서 경배한다는 경의를 표시하는 뜻이 들어있다.⁵⁾

그러나 도시화나 산업화가 이루어진 사회나 지역공동체의 경우 공동체의 고유성과 전통성이 떨어져가고 제의로서의 특징을 갖출 사회적 여건이 사라져가는 현대도시에서의 축제의 기능 중 하나는 일탈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의 창출을 통하여 지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천안홍타령축제와 오하라마츠리는 춤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일탈의 공간을 제공하면서 전통문화의 보존기능과 관광기능 등을 보장시키고 있다. 천안홍타령축제와 오하라마츠리의 유래 및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천안홍타령축제

천안은 대외적으로 ‘천안삼거리’로 알려져 있고 또 ‘홍타령’이라는 지명도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1987년에 ‘천안삼거리 홍타령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축제가 시작되어 제4회(1990년)때부터 ‘천안삼거리문화제’로 변경된 뒤 지역을 대표하

5) 최인학(1996), 전개논문, p. 111

는 축제로 개최되고 있었다. ‘천안삼거리문화제’는 시행초기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였으나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타 지역의 축제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데 비하여 ‘천안삼거리문화제’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축제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천안삼거리문화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본의 요사코 이소란마츠리를 모델로 한 경연위주의 춤 축제를 개최하기로 하고 2003년 10월 2일부터 10월4일까지 42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천안홍타령축제2003이 개최되었다. 축제의 주제는 ‘다함께 흥겨운 춤을’로 정하였다. 천안홍타령축제의 기본 컨셉은 천안삼거리 전설과 홍타령을 축제의 소재로 하되 현대인의 취향에 맞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연형태의 춤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참가 팀은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 개방형 경연방식을 채택하되 축제의 참가 열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입상팀에게는 상당한 금액의 상금을 주기로 하였다.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경연에 참가하는 팀의 음악에 홍타령 리듬의 한 마디가 들어가거나 ‘천안’ 또는 ‘흥’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는 규칙을 두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축제의 정체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⁶⁾.

천안홍타령축제는 ‘춤’이라는 단일 주제로 처음 시도돼 전국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참여형·체험형의 현대적 성격이 강한 문화관광축제이다. 2008년에 제6회를 맞이하는 천안홍타령축제는 2006년 문화관광 예비축제에 선정되고 2007년 문화관광 유망축제, 2008년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되면서 그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빠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전국 유일의 춤 축제이다.

비교대상인 천안홍타령축제2007은 2007년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삼거리공원, 아라리오 천안역광장, 문화동청사 등에서 거행되었다. 천안삼거리의 옛 고유정서를 담아내는 특성화 된 축제, 전국 유일의 춤을 테마로 참여하는 신명나는 축제, 시민 스스로 만들고 모두가 참여하는 함께하는 축제를 기본테마로 하였다. 천안의 홍타령 민요를 현대 감각에 맞게 접목하여 다양한 춤과 음악으로 한테 어우러지는 신명과 감동과 화합의 한마당 축제의 장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그 기획방향은 관람위주의 소극적 참여에서 참여자들이 축제 주인공이 되는 적극성을 함양하고 축제 브랜드를 통한 천안이미지 홍보 및 관광마케팅화 그리고 관광상품개발과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계화이다.⁷⁾

6) 천안대학교 전략경영연구소(2003), 『천안홍타령축제 2003 조사연구』, pp. 3-6

7)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2007), 『천안홍타령축제 2007 종합세부추진계획』, p.23

2-2. 오히라마츠리

오히라마츠리는 1949년 가고시마시제(鹿児島市制)시행 60주년의 기념행사로 시작되어 태풍으로 인하여 2회(1951년, 1955년) 그리고 소화천황의 건강불안으로 인하여 1회(1988년)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일본 큐슈 남단의 가고시마시 최대의 가을축제 중의 하나이다. 일본에서 거행되는 축제를 크게 현대적 마츠리와 전통적 마츠리로 분류할 때 현대적 성격이 강한 축제라 생각된다.⁸⁾

출발할 당시에는 오히라마츠리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오히라부시(おはら節)⁹⁾의 춤은 가설무대에서 공연되었고 가고시마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장식된 자동차의 퍼레이드가 가고시마 역에서 서가고시마역까지 이루어졌고 꽃으로 장식된 꽃전차가 운영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축제라기보다는 하나의 기념행사 정도였다. 이후 제5회(1954년) 때 봄의 미즈마 마츠리와 여름의 미나토 마츠리를 합하여 오이돈마츠리로 변경하였고 제7회(1957년)에 오이돈마츠리에서 오히라마츠리로 명칭이 다시 변경되었고, 제18회(1968년)때부터 축제 날짜를 문화의 날인 11월3일로 정하여 현재에 이른다.

제10회(1960년)에 자동차 가장퍼레이드가 중지되고 현재의 오히라마츠리의 상징이고 대표프로그램인 춤의 렌(連, 이하 행렬)¹⁰⁾ 형태를 취하였다. 춤의 행렬(連) 코스는 제11회에는 2개소로, 제16회 때는 3개소로 늘리는 등 몇 차례 변화를 거쳐 제39회(1989년)에 현재의 코스인 타카미바바(高見馬場)에서 잔바시토오리(残橋通)로 정해져 현재에 이른다. 현재의 거리퍼레이드 형태의 모습은 제23회(1973년)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서가고시마역에서 가고시마역까지의 거리를 12시부터 16시까지 4시간동안 차량통행을 전면 통제하며 축

8) 지역축제로서 일본의 마츠리는 지역사회의 종교시설에 기반을 두거나 전통적 생활양식과 영중행사 등에 기초한 '전통적 마츠리'와 비교적 최근에 어떠한 목적아래 만들어진 '현대적 마츠리'로 나눌 수 있다.(김양주(1999), 「마츠리와 지역사회, 지역활성화 : 일본의 '요사코이' 예를 중심으로」, 『축제, 민주주의, 지역활성화』 새길, p.159) 여기에 따르면 가고시마의 오히라마츠리는 전통적 마츠리라기보다는 현대적 성격이 강한 마츠리라 할 수 있다.

9) 오히라부시(おはら節)는 가고시마의 대표적인 민요이다. 江戸시대의 초기에 시마즈케가(島津家)가 琉球(지금의 沖縄)를 침공하였을 때 휴가코쿠야스히사(日向国安久:지금의 미야자키현-宮崎県-의 미야코노조-都城市-)의 무사가 진중에서 부른 노래를 가고시마의 하라라(原良:ハラ)의 무사가 귀국 후 가사를 만들어 부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가고시마 일원으로 넓게 퍼져 하라라에 오(お,小)를 붙여 "오히라부시(小原良,オハラ節)로 불리었다한다. 노랫말은 가고시마의 특산물과 상징 꽃, 가고시마출신 위인 등으로 이루어졌다. 오히라부시의 노래에 맞추어 추는 춤은 가고시마의 상징인 사쿠라지마 섬의 모습과 화산에서 솟는 연기, 그리고 가고시마의 상징 심벌 등의 모습을 몸짓으로 표현하였다.

10) 춤의 형태가 참가 단체별로 무리가 되어 리듬에 맞춰 함께 춤을 추며 거리를 행렬의 형태를 이룬다.

제의 흥을 돋우기 위한 보행자의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거리에서 춤을 추며 공연의 형태를 취하는 퍼레이드 형태의 오하라마츠리는 제25회(1975년)에는 춤의 행렬(連) 참가자가 10,000명을 돌파하고¹¹⁾ 제55회(2006년)의 경우 23,397명에 이르며 가고시마시 최대의 춤을 테마로 하는 가을축제로 정착하고 있다.

비교대상인 제55회(2006년)의 오하라마츠리는 11월 2일과 3일에 가고시마시의 타카미바바(高見馬場)에서 잔바시토오리(残橋通)까지의 약 1.5km의 거리에서 오하라부시(おはら節)의 춤 이외에 가고시마항야부시(鹿児島ハンヤ節)¹²⁾의 춤과 시부야온도(渋谷音頭)¹³⁾의 춤을 추며 거리에서 퍼레이드 형태로 연행되었다.

3. 한 · 일 축제문화 운영현장의 비교

한 · 일 축제문화 운영현장의 비교는 축제운영의 실질적인 전략뿐만 아니라 한 · 일 양국의 축제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축제문화 운영현장의 비교는 춤의 연행 장소와 춤의 구성과 참가방법 그리고 춤의 교육과 연습 등 7개 분야를 비교하였다. 이들 7개 분야의 비교분석은 현대사회에서 축제의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1. 춤의 연행 장소

3-1-1 천안흥타령축제2007

천안흥타령축제2007의 춤의 연행 장소는 삼거리공원과 아라리오광장 그리고 문화동시청사의 3개소이다. 삼거리 공원에는 주 무대와 자유무대가 설치되어 천안흥타령 축제에 참여한 팀들의 춤 공연과 경연 그리고 외국인 장기자랑, 세계민속공연, 춤따라 배우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밖의 공간에는 먹을거리 장터와 휴식처 그리고 한지공예와 댄스체험관 등 35종의 체험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11) www.city.kagoshima.lg.jp おはら祭の歩み,

12) 가고시마항야부시(鹿児島ハンヤ節)는 가고시마로부터 항로를 따라 일본 여러 지역에서 불리는 노래로 향야란 번영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설도 있고 향야란 특별한 의미가 없이 흥이 날 때 자연스럽게 내는 소리라는 설도 있다. 항야부시의 춤은 제13회(1963년)부터 채택되었다.

13) 시부야온도(渋谷音頭)는 시부야구(渋谷区)·가고시마오하라 마츠리의 교류를 돈독히 하기위하여 제 55회(2006년)에 새롭게 채택된 토오쿄(東京)의 시부야구(渋谷区)의 노래이다. 토오쿄(東京)의 시부야구(渋谷区)와의 축제교류는 제47회(1998년)에 제1회 시부야·가고시마오하라마츠리(渋谷·鹿児島 おはら祭)라는 이름으로 참여하며 현재까지 계속 상호교류하고 있다.

문화동 시청사는 춤 경연의 예선과 외국 예술단의 초청공연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아라리오 광장은 거리의 광장으로 도시댄스 예선과 춤 경연 예선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거리퍼레이드의 도착지이다.

3-1-2. 오히라마츠리

오히라마츠리의 춤의 연행 장소는 크게 두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구역은 소우오도리(総踊り),이하 연합춤¹⁴⁾의 행렬(連)과 퍼레이드·고적대연주와 전통예능의 행렬(連)과 댄스(오히라21)의 행렬(連) 그리고 오고조타이코(おごじょ太鼓, 이하 가고시마여성큰북경연¹⁵⁾)가 이루어지는 가고시마시의 중심가인 타카미바마(高見馬場)에서 잔바시토오리(残橋通)까지의 약 1.5km의 거리와 가고시마시청 앞의 미나토공원의 You유광장(遊広場)이다. You유광장(遊広場)에서는 케릭타쇼와 매직퍼포먼스 등이 이루어지며 지역의 특산품이 전시판매되고 먹을거리코너가 마련되어있다.

제 2구역은 또한 오히라마츠리가 열리는 기간에 같이 열리는 이벤트 공간이다. 가고시마시의 중앙공원에서는 후루사토예능제가 열리고, 가고시마의 제1의 번화가인 덴몬칸(天文館)의 덴몬칸(天文館)공원에서 본격 소주 페스타(フェスタ)와 덴몬칸마츠리(天文館祭)가 열려 소주의 시음장소와 무대를 만들어 흥겹게 춤의 공연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태루쿠니오모테산토우(照国表参道)번화가에서 진행되는 이벤트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타이(屋台) 등의 시식코너에서 음식을 먹으며 즐긴다. 축제 운영에 있어서 유사축제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효과를 주어 방문객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다.

춤 연행의 장소는 천안홍타령축제는 거리와 삼거리공원무대와 시청사의 3곳이지만 오히라마츠리의 경우 일정한 시간동안 차량을 전면 통제된 거리뿐이다.

3-2.춤의 구성과 참가방법

3-2-1.천안홍타령축제

천안홍타령축제에서 춤의 구성은 거리퍼레이드와 춤 공연과 춤 경연이다. 거리퍼레이드의 참여단체의 모집은 5월 28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다. 거리퍼레이드는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2시간 40분 동안 거행되는데 천안농고에서 천안역을 거쳐 아라리오 광장에 이르는 2.2km 구간으로 춤과 노래를 테마로 ‘한마당 흥’의 거리축제로 기획한 것이다. 거리퍼레이드의 참여

14) 소우오도리(総踊り)는 공연에 참가하는 팀들이 팀별로 일체가 되어 행렬(連)을 이루며 걸어가며 춤을 추는 것

15) 오고조(おごじょ)는 여성을 의미하는 가고시마 사투리이다.

현황은 <표-1> 과 같다. 경연 22팀(1,642명)과 퍼레이드의 행렬만 참여하는 21팀(417명)으로 모두 43팀(2,059명)이다.

<표-1>천안홍타령축제2007 거리퍼레이드의 참가현황

구분		참가팀수	인원(명)	구분		참가팀 수	인원(명)
음 악	초청군악대	1	40	외 국 인	자매도시	1	25
	시립	2	76		우호도시	1	25
	경연	4	197		경연	4	230
	소계	7	313		공연	3	65
경연		14	1,215	소계		9	345
특산물		3	10	기타		5	89
상징물		3	7	계		43	2,059

거리퍼레이드 경연 팀의 참가자격은 지역, 나이, 국적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팀원구성은 20명이상(춤과 음악으로 구성)으로 경연시간은 경연장소별로 2분 이내이다. 경연 팀의 구성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인과 외국인 그리고 전문적인 춤 경연팀 등이다.

퍼레이드에서 경연은 하지 않고 행렬만 참여 하는 팀은 21팀으로 음악을 담당하는 미군군악대와 홍타령풍물단, 자매도시인 중국 석가장시와 우호도시인 중국 문등시 그리고 공연을 하는 필리핀예술단과 네팔민속춤공연단 등 417명이다. 이들은 춤과 음악의 전문성을 갖춘 팀들이다. 거리 퍼레이드에서 특이한 것은 춤과 음악 뿐 아니라 컨셉차량과 천안의 특산물인 배, 포도, 호두장식차량, 키다리 피에로 등이 참여하여 춤 이외의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거리퍼레이드의 참여자와 방문객들을 위하여 생수 및 두레왕와인 등의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무대에서의 춤 경연은 천안홍타령축제의 핵심으로 참가자격은 지역, 나이, 국적에 제한 없이 희망자 전원을 접수하고 팀 구성은 10인-50인 이내이고 경연시간은 3-4분정도로 천안고유 정서가 춤에서 배어나오도록 테마 표현음¹⁶⁾을 한 가지 이상 춤 주제와 조화롭게 구성하여야한다. 참가비는 일반부 200,000원 그리고 학생·홍타령·외국인부는 100,000원이다. 천안홍타령축제2007의 경우 195팀(관내 86팀, 관외 109팀) 4,575명이 참가하였다. 경연은 학생부, 일반부, 홍타령부, 외국인부로 나뉘며 대상 팀에게는 상금이외에 해외축제견학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16) 천안홍타령한마디/홍·홍/천안·천안/삼거리·삼거리 중 1가지 이상 표현이 의무이고 천안 고유 정서를 살릴 수 있는 표현물, 소리 사용 연출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천안홍타령축제 기간 동안 천안아시아도시댄스 본선과 결선경연을 삼거리공원과 아리리오 광장에서 거행하였는데 21팀 83명이 참가하였다. 예선 공연은 서울에서 개최하여 서울지역에 천안홍타령축제를 사전홍보하면서 유명 춤꾼들을 축제장으로 유도하였다.

공연은 외국인참여행사를 확대하여 17개국 54팀 824명의 춤경연과 아시아도시댄스, 세계음식, 거리퍼레이드, 전통혼례, 외국인장기자랑의 6개의 행사가 이루어졌다.

천안홍타령축제에서 춤의 구성은 거리퍼레이드와 춤 공연과 춤 경연이다. 이러한 구성 중 천안홍타령축제를 대표하는 것은 춤 경연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춤의 구성과 참가에서 천안홍타령축제는 전문가 경연의 비중이 높아 홍타령축제를 방문하는 춤의 비전문인이나 일반 관광객들의 춤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되고 있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춤에 대한 비전문가인 관광객들은 객석에 앉아있는 관람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구조는 관람자와 춤을 경연하고 공연하는 자의 이중적 구조가 되어 함께 어울리는 공간의 창출은 어려워지고 자칫 천안홍타령축제는 춤 전문가 경연장으로 변할 수도 있다.

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연이라는 무대가 필수적이라면 일반인들에게 삼거리공원이나 아리리오 광장 등에서 쉽게 천안의 춤바람과 흥을 더불어 같이 느낄 수 있는 마당놀이적인 공간의 마련, 즉석에서의 홍타령 춤 배우기 코너의 적극적 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통하여 대중성을 확보하면서 전문성과의 조화를 이루는 마당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화가 이루어질 때 천안홍타령축제는 재미있는 축제,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어 보다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리라 생각한다.

3-2-2. 오하라마츠리

오하라마츠리의 춤의 구성은 연합춤(総踊り) 행렬(連)의 거리퍼레이드와 공연인데 연합춤(総踊り)의 행렬(連)에 중점을 둔다. 모든 팀들이 행렬(連)별로 특색 있는 핫피와 유카다 등 일본 전통의상¹⁷⁾을 착용하고 퍼레이드 및 공연에 참여하여 참여자들이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

11월 2일은 전야제 성격의 야간마츠리(夜祭)로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내용은 연합춤(総踊り)과 가고시마여성큰북경연이 이루어진다. 11월 3일은 본마츠리(本祭)로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내용은 총 4부로 나뉜다. <표- 2>

연합춤(総踊り)의 참가는 참가신청서를 받는데 참가마감은 8월 31일까지이다.

17) 참가자들이 축제에 참여할 때 핫피나 유카다 등 전통의상을 싸게 구입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오하라마츠리조직위원회에서 구입처를 알선해주고 있다.

연합춤(総踊り)의 경우 한 팀의 춤의 행렬(連)의 최고인원은 200명까지이고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두 행렬(連)로 참가한다. 제55회(2006년)의 경우 연합춤(総踊り)의 참가는 256행렬(連) 20,574명이다.

<표- 2> 오하라마즈리 춤의 구성표

구분 \ 년도		2005년		2006년	
		연수(連數)	인수	연수(連數)	인수
2일 야간마즈리(연합춤)		108연(連)	8,412명	103연(連)	8,021명
본마즈리 (本祭) (3일)	제1부 : 연합춤	77연(連)	7,125명	80연(連)	7,156명
	제2부 : 퍼레이드와 전통예능	19단체	776명	25단체	1,073명
	제3부 : 연합춤	76연(連)	5,698명	73연(連)	5,397명
	제4부: 댄스(오하라21)	16연(連)	1,277명	17연(連)	1,398명
오고쇼 큰북		27단체	286명	27단체	352명
춤행렬의 단체 합계		261연(連)	21,235명	256연(連)	20,574명
총참가 단체		323단체	23,574명	325단체	23,397명

이들 연합춤(総踊り) 행렬(連)의 구성에서 가고시마시에서의 참여는 주민자치 모임(町内会)¹⁸⁾ 토오리카이(通り会)¹⁹⁾, 쇼쿠이끼(職域)²⁰⁾, 초·중·고·대학교, 댄스 교실, 댄스동호회, 관광협회 등으로 구성된다. 가고시마시외에서의 참가는 동경의 시부야구(渋谷区)와 고향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제에 참여하려는 일본 여러 지역 현인회 그리고 가고시마시와의 마즈리 교류의 차원에서 북큐슈시와 구마모토시 등 9개의 큐슈내의 주요도시와 코베시에서 참가하였다. 해외에서는 가고시마의 자매도시인 미국의 마이아미시와 싱가포르에서 참가하였다²¹⁾. 즉 타 지역과의 축제의 교류를 통하여 외지에서도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현인회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제2부 퍼레이드·고적대와 전통예능의 경우는 퍼레이드는 지역의 관현악단

18) 시(市)나 구(区)안의 한 구획으로 한국의 동(洞)에 해당하는 지역인으로 구성된 일종의 주민자치 모임. 가고시마의 경우 시역소의 시민참여추진과 지역진흥회 또는 각 지소(요시다(吉田), 사쿠라지마(桜島), 마쓰모토(松本), 코오리야마(郡山), 키이레(喜入))의 지역진흥회에서 모임을 담당하고 있으며 친목과 문화 활동, 쓰레기 처리함 관리, 방법등의 설치 및 관리, 자주방재활동 등을 목적으로 조직되고 있다.

19) 지역 내의 도로를 따라 일정한 같은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로 구성됨.

20) 직장이나 직무의 범위에서 구성됨.

21) 2006년 오하라마즈리(おはら祭)진흥회총회 자료(平成19년 6월25일 おはら祭振興会総会)

학교의 매직밴드 팀 등이 참가한다. 전통예능의 공연은 제55회(2006년)때 새롭게 시작된 것으로 가고시마현 내의 4개의 타이코(太鼓, 이후 큰북)문화보존회에서 오히라마츠리의 춤구역인 타카미바바(高見馬場)에서 잔바시토오리(残橋通)까지의 약 1.5km의 구간에 있는 4곳의 사거리교차점에서 큰북(太鼓)을 공연하는 것이다. 이러한 큰북(太鼓)공연은 축제의 흥을 북돋운다.

제4부의 댄스(오히라21) 행렬(連)의 경우에는 오히라부시(おはら節)를 빠르게 편곡한 「TOKYO오히라」에 맞춰 역동적인 춤을 춘다. 댄스(오히라21)의 경우도 연합춤(総踊り)과 같은 기간에 신청서를 받는데 제55회의 경우 17춤의 행렬 1,398명이 참가하였다. 댄스(오히라21)의 경우에 참가하는 팀 중에는 YOUNG춤 행렬(連)이 있다. YOUNG춤 행렬(連)은 제49회(2000년)에서부터 조직된 것인데 이름 그대로 젊은이들로 구성된 춤 행렬(連)이다. 자격은 원칙적으로 중학생에서부터 20세까지의 남녀이고 춤을 좋아하고 마츠리가 좋고 가고시마의 민요인 오히라부시(おはら節)를 외워 보고자하는 이들은 참가가 가능하다. 제55회(2006년)의 경우 200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모집하고 총 10회 정도의 연습을 하고 전통의상을 착용하고 60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하였다. 이들에게는 오히라마츠리진흥회에서 의상과 도시락 등을 지원해준다. 야간마츠리(夜祭)와 본마츠리(本祭) 제1부와 제3부에 참여하는 가고시마여성큰북공연은 제40회(199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제55회(2006년)의 경우 2일간 27개 단체 352명의 여성들이 참가했다.

연합춤(総踊り)의 행렬(連)에 참여하는 팀의 구성이 전문가로부터 일반 초보자까지, 가고시마현 내외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많음 속에도 특징은 자칫 소홀히 될 수도 있는 축제 경험의 소외계층인 장애인, 노인 복지센터의 노인, 병원 등에서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휠체어를 타고 참여하고 젊은이들과 여성을 축제의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어린이들이 부모와 같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그 참여가 가고시마 전 지역으로 확대되며 춤을 통하여 일탈의 기분을 느낀다. 특히 연합춤(総踊り)의 행렬(連) 별로 특색 있게 입은 일본 전통의상과 다양하고 화려한 춤 의상 그리고 소품들은 팀의 색을 더욱 더 차별성 있게 나타내고 참여자의 일체감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가고시마시의 최고 변화가인 타카미바바(高見馬場)에서 잔바시토오리(残橋通)까지의 약 1.5km의 거리에서 8시간 동안의 교통통제를 실시하며 오히라마츠리가 거행될 수 있는 여건이라 생각한다.

춤의 구성과 참가방법에서 오히라마츠리가 천안홍타령축제에 비하여 다양하고 범위가 넓다. 천안홍타령축제의 거리퍼레이드에 참여하는 팀은 공연과 경연 팀 모두 43개 팀 2,059명인데 비하여 오히라마츠리의 경우 325단체 23,397명의 다양한 팀이 참가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적 성격을 대변하는 다양한 조직과 단

체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마츠리 교류라는 이름으로 다른 도시에서의 참가가 많으며 팀들끼리는 같은 의상을 착용하여 일체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²²⁾

3-3. 춤의 교육과 연습

3-3-1 천안홍타령축제

천안홍타령축제에서의 춤은 경연 팀과 공연 팀으로 나뉘는데 자유롭게 각 팀별로 고유한 색을 나타내며 연주와 춤을 춘다. 이 팀들의 춤과 음악의 연습은 팀별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대중적이라기보다는 전문적인 수준이다.

일반 대중을 위한 춤 교육과 연습은 천안홍타령축제에 참여만을 위한 춤 연습이 아니라 천안이 춤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천안에서 창작한 홍타령 춤²³⁾을 보급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하여 전년도 춤 경연 학생부 입상 팀의 학교 4개교를 춤 보급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그리고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외 15개소에서 야간건강체조교실(2007.4-2007.10)을 주2회 이상 운영하면서 홍타령 춤 따라 하기 등을 교육시킨다.

홍타령 춤 보급을 위하여 춤 지도 요원 공무원을 육성하고 동영상과 음악 등을 제작하여 기업체나 기관 단체 등에 보급을 하여 축제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흥과 활력이 넘치는 젊은 도시 천안의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있다. 이 홍타령 춤은 천안예술제와 홍타령축제 때 홍타령 춤 경연대회를 통하여 역량을 겨루게 하고 있다. 천안홍타령축제 기간 동안에는 홍타령 춤 따라 하기 코너를 상설운영하며 축제 방문객들에게 홍타령 춤을 보급 하고 있다.

3-3-2 오하라마츠리

춤의 교육과 연습은 2가지 방법으로 열린다. 한 가지는 오하라마츠리진흥사무국에서 하는 것으로 연합춤(総踊り) 팀의 지도자를 위한 안무춤연습회이다. 제56회(2006년)의 경우 안무춤연습회는 8월23일부터 매주 1회씩 오후에 2시간씩 이루어졌다. 장소는 가고시마시내의 공민관과 가고시마 아리나(アリーナ)라고 하는 체육시설이다. 연습 곡목은 오하라부시(おほら節)와 가고시마항야부시(鹿兒島ハンヤ節) 그리고 시부야온도우(渋谷音頭)이다. 이때 이루어지는 춤 연습과 교육은 가고시마시민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 연합춤(総踊り) 행렬(連)에 참여하는 각 팀의 대표와 지도자들을 위한 춤 연습과 교육이다. 그러므로 연합춤(總

22) 이러한 한일축제 현장분위기의 차이는 兪起濬(2007),전개논문 pp. 46-50 참조

23) 홍타령 춤은 천안삼거리 민요 홍타령을 현대적 리듬으로 각색 편곡한 곡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 아주 기초적인 한국무용의 곡선 동작과 현대무용의 직선동작을 적절히 배합하여 연출 안무하였다.

踊り) 행렬(連)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할 때 오히라마츠리의 안무춤연습회의 참가 여부를 묻고 있다. 이때 200명이상 참가 예정 기업이나 단체에는 춤 연습을 위한 강사를 오히라마츠리진흥사무국에서 파견해준다.

춤의 교육과 연습방법의 다른 하나는 안무연습회에서 교육을 받은 지도자나 오히라부시(おはら節) 춤 전문 강사가 중심이 되어 자신의 소속팀에 가서 팀원에게 춤의 교육과 연습을 시키고 연합춤(総踊り)의 행렬(連)에 참가한다. 연합춤(総踊り)에 참여하는 팀의 춤 교육과 연습은 해당팀²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본 행사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오히라마츠리가 거행되기 두세 달 전부터는 가고시마의 이곳저곳에 오히라부시(おはら節)의 춤 연습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들 팀에 대한 오히라마츠리진흥사무국의 지원은 거의 없다. 춤이 좋아서 참여하는 자발적인 동기이다. 춤의 교육과 연습이 직장이나 지역 학교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자연스럽게 축제 분위기를 축제 시작 전부터 가고시마시 전체로 확대된다. 이러한 전략은 가고시마 시민들에게 레크리에이션 기능을 제공한다는 오히라마츠리진흥회의 목적²⁵⁾에서도 나타나는바 춤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라 생각된다.

오히라마츠리의 퍼레이드에서 춤 공연은 전문가 그룹과 비전문가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어 비전문가라해도 쉽게 춤의 행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특히 팀의 구성이 100명 정도로 많아서 능숙한 춤 솜씨가 아니더라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있는 것이다. 또한 축제가 이루어지는 당일, 관광객을 위한 춤배우기 코너가 마련되어 오히라부시(おはら節)의 춤 연습을 하고 연합춤(総踊り)의 행렬(連)에 들어 갈수가 있다.²⁶⁾ 이는 춤의 전문성과 대중성의 적절한 조화라 생각한다.

춤의 교육과 연습에서 천안의 경우에는 홍타령 춤을 연습하여 경연대회에 참가는 하지만 천안홍타령 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춤 연습이 아니다. 오히려 홍

24) 연합춤(総踊り)의 참여 팀의 하나인 유학생 로타렉트 경우 유학생이라는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가고시마대학의 학생기숙사와 외국인 숙소가 있는 가고시마대학 국제교류회관에서 10월3일부터 10월31일까지 매주 화요일 20:00부터 21:00까지 전문 강사와 회원들이 모여 유학생과 주변의 일본인들이 모여 춤 연습을 하고 축제 당일 본 행사에 참여한다. 이때 유학생들이 입는 유가타는 로타렉트에서 준비를 하고 점심을 대접해준다. 이때의 경비는 오히라마츠리진흥사무국의 지원이 아니라 로타렉트의 자체 예산에서 지拂한다.

25) 2006년 오히라마츠리(おはら祭)진흥회회계감사보고자료 (平成19년 5월28일 おはら祭振興會総會)

26) 제56회(2007. 11.2-11.3)오히라마츠리의 본마츠리가 열리는 11월 3일 공주대학교 학생 30명은 09시부터 가고시마시청에서 GENKIGAIKOKUJIN AND FRIENDS라는 팀의 팀장과 함께 약 2시간의 오히라부시의 춤연습을 하고 연합춤(総踊り)의 행렬에 참가하였다. 참가한 학생들은 모두 새로운 경험으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타령 춤의 보급으로 시민들의 건강 및 춤의 고장 천안이라는 이미지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가고시마의 경우는 오하라마츠리의 거리퍼레이드 속에서 흠뻑 춤을 추는 것을 통하여 일탈의 공간과 시간을 창출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즉 연합춤(総踊り)의 행렬(連)에 자율적인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춤 축제의 열기 속에 빠져 함께 즐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 같이 어린아이들을 참여시켜 자연스럽게 축제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전달하고 있다.

3-4. 축제추진체계의 구성

천안흥타령축제2007의 축제추진체계는 천안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축제기본계획수립 및 이용료 등 금액을 심의한다. 또한 흥타령축제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협조를 위하여 축제전문가와 참여단체 그리고 축제관련기관 등으로 구성된 천안흥타령축제2007기획단과 축제사무국과 축제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오하라마츠리의 경우는 초기의 축제의 주최는 가고시마시와 상공회의소와 남일본신문사가 공동으로 하였으나 제10회(1960년)부터는 오하라마츠리진흥회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른다. 오하라마츠리진흥회의 회장은 가고시마 시장이다. 특이한 점은 초(町, 이하 동네)의 대표가 오하라마츠리진흥회 임원의 이사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 단계부터 동네(町)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함이고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이 축제의 주요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축제의 추진체계가 관(官)중심이 아니라 관(官)과 지역민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는 것으로 지역민도 축제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하게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축제는 없기 때문이다.

3-5. 축제의 홍보

3-5-1 천안흥타령축제

천안흥타령축제의 홍보는 관내홍보와 전국홍보로 구분 실시하며 다양성을 추구하되 산만한 홍보를 지양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핵심적 홍보만을 실시한다는 방향을 정하고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제1단계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춤 경연 참가 및 축제내용을, 제2단계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축제참여 유도 및 협조를, 제3단계인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축제현장 생방송 홍보로 단계별 시행하였다.

단계별로 TV방송과 신문 매체 뿐 아니라 축제박람회 참가, 축제전문잡지 홍보, 인터넷 및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아치, 배너기,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지

방세고지서에도 축제의 개요와 참여안내를 하는 등 다양한 매체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홍타령축제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최대한의 안내와 서비스를 하려는 적극적인 전략이 보인다.

축제의 분위기 고조를 위하여 꽃장식차를 아라리오 광장에 배치하고 있다.

3-5-2 오하라마츠리

오하라마츠리의 광고 선전은 행사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광장’이라는 시정정보지와 가고시마현 내의 생활정보잡지 등에 게재하고 보도기관의 협력으로 신문이나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있다. 어떤 광고성 이라기 보다는 보도성 홍보적인 성격이 강하다. 포스터, 전단지, 안내책자를 만들어 가고시마 현 내의 시와 그리고 관광관련단체에 배포하고 큐슈 등의 주요 역에 포스터를 부착하였다. 장식으로 상점가의 협력을 얻어 연합춤(総踊り) 행렬(連)의 거리에 초롱이나 배너기, 장식, 간판 등을 부착하고 주위의 백화점의 협력으로 현수막설치와 시청발코니에 장식 간판을 설치하였다.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하여 가고시마 시내에 운행되는 전차에 꽃 장식을 한다. 꽃 장식을 한 전차는 10월 14일부터 운행되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축제날인 11월 2일과 3일에는 춤추는 구역에 배치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북돋우는데 도움을 준다.

축제의 홍보 전략은 축제의 성공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오하라마츠리의 경우 천안홍타령축제2007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홍보 전략은 미흡하다. 특히 외부방문객들을 위한 홍보안내를 위한 현수막이나 편의시설은 부족하다. 이는 천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오하라마츠리의 경우 이미 지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홍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또한 오하라마츠리의 경우에 관심의 출발점이 외지의 방문객이 아니라 지역주민 위주로 나간 후에 자연스럽게 외부인을 유인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 6. 축제의 예산

3-6-1 천안홍타령

천안홍타령축제2007의 세입과 세출 현황은 <표-3>과 같다.²⁷⁾ 총 예산액 중 약 96.4%가 시와 국가의 보조금이고 춤 경연 참가비 2.2% 그리고 음식점부스 참가비 1.4%이다.

세출중 시설비는 약 7.1%로 편의시설, 전기설비, 화장실 등의 설치와 영상물

27) 천안시청 내부자료

제작편집에 사용되었다. 무대 연출비는 약18%로 무대시스템 등 연출용역에 사용되었고 부대행사는 10.5%로 초청공연과 외국인장기자랑, 세계음식체험 등의 행사에 사용되었다. 홍보비는 21.5%로 홍보물제작, 홍보인쇄비, 영상중계시스템 등으로 배너기, 현수막, 안내판 등의 제작에 사용되었다. 보상금은 25.2%로 춤경연 시상, 퍼레이드시상, 포스터 공모시상, 자원봉사자 수당 등에 사용되었다. 거리퍼레이드 비용은 12.5%로 참가보상비, 기타 퍼레이드안내판, 퍼레이드 컨셉차량 제작 등에 사용하였고 기타항목 5.6%로 행사안전보험료, 차량 임대료, 우편요금 등 이다.

<표-3> 천안홍타령축제2007 세입 세출 현황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시 보조금	950,000	시 설 비	70,190
		무대연출	176,800
춤경연 참가비	21,280	부대행사	100,160
		홍 보 비	211,535
음식점 참가비	13,800	보 상 금	248,652
		거리퍼레이드	122,609
계	985,080	기 타	55,134
		계	985,080

3-6-2 오하라마츠리

오하라마츠리의 세입과 세출 현황은 <표-4> 와 같다.²⁸⁾ 총 예산액 중 약 90%가 가고시마시의 부담이고, 가고시마컨벤션협회와 가고시마상공회의소가 각각 0.5%정도이다. 조성금은 기업의 후원금형태를 띤 것으로 가고시마은행에서 0.8% 정도이고 협찬금은 1.3%정도이다. 지출은 총무비 0.5%로 수용비·역무비로 이사회·총회 등의 안내장송부에 사용되었다. 행사비는 78% 정도로 대회 당일 아르바이트대금 및 강습회강사 사례금, 사진콘테스트 심사 사례금, 영오도리 의상과 전기·방송설비경비, 본부석 등의 설치에 사용되었다. 선전비는 약 21.6% 정도로 시부야·가고시마 오하라마츠리 참가여비, 마츠리 참가 기념타올, 광고 게재료, 시전차장식위탁료, 포스터, 전단지 등으로 지출되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오하라마츠리의 특이한 점은 협찬금을 받고 있고 메세나(Mecenat) 운동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조성금이 있고 예산을 절약하여 조월금으로 다음해로 이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8) 2006년오하라마츠리(おはら祭)진흥회회계감사보고자료 (平成19년 5월28일 おはら祭振興會總會)

〈표-4〉 오히라마쓰리의 세입 세출현황 (단위: 엔)

세 입			세 출			
구 분	항 목	금 액	구 분	예 산	지 출 액	불 용 액
부 담 금	가고시마시	32,732,000	총 무 비	310,000	175,000	135,000
	가고시마 관광컨벤션협회	200,000				
	가고시마상공회의소	200,000	행 사 비	27,226,000	25,341,369	1,884,631
	계	33,132,000				
조 성 금	가고시마은행 문화재단	300,000	선 전 비	8,329,000	7,015,405	1,313,595
	계	300,000				
협 찬 금	장도상사	300,000	계	35,865,000	32,531,774	3,333,226
	가고시마 선박부	50,000				
	유유광장 점포 협찬금	117,500	예 비 비	500,000	0	500,000
	계	467,500				
조 월 금	계	2,482,487	합 계	36,365,000	32,531,774	3,833,226
합	계	36,381,987				

천안홍타령축제의 예산은 96.4%가 시와 국가의 보조금이지만 오히라마쓰리의 경우90%가 가고시마시의 부담이고 10% 정도는 공식적인 현금협찬과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천안홍타령축제의 경우 현금협찬과 후원에는 법적 제한이 되어있어 안내책자 등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의 사용에서 오히라마쓰리의 경우 축제의 장소를 만들어주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춤을 즐기 위한 제반 준비는 시에서의 지원이 아니라 춤을 추는 참여자들의 몫이다.

3 - 7.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알리기 및 부대행사

3-7-1 천안홍타령

천안홍타령축제2007의 경우 축제를 통하여 지역이 지니고 있는 모든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읍·면·동 민속놀이행사, 세계민속춤공연, 홍타령포크송열전, 팔도사투리경연, 대학동아리한마당, 내가 천안스타 등 13종의 부대행사를 운영하였다. 또한 춤과 천안지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행사로 춤 체험관과 홍타령풍물난장 등 35종 체험행사를 열고 음식과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축제관련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3-7-2 오하라마츠리

오하라마츠리 기간 동안에 전통예능공연이나 춤공연 이외에는 가고시마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특별한 체험행사나 부대행사는 없다. 다만 가고시마의 특산물인 소주와 녹차 등의 소개와 맛을 볼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가고시마 주조조합에서 소주와 보리차 코너를 운영하여 연합춤(総踊り) 행렬(連)의 진행 중의 휴식시간에 거리 한복판에서 술과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물과 술은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도에서는 가고시마현의 차산업 조합원과 차동호회원 등에 의한 자원봉사로 차서비스코너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 가고시마의 성산라이온스크럽에서 현대 11개의 시설물에서 만든 생산품을 판매하는 자선바자회가 열리는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축제 현장처럼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지역문화의 많은 것들을 알려주려는 모습도 또 방문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는 부족하다.

운영본부에서 쓰레기수거를 위하여 쓰레기 수거요원 이외에 축제를 보러온 방문객들에게 자원봉사의 차원에서 쓰레기수거봉지와 집게 그리고 장갑을 주고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소정의 기념품을 주어 축제공간의 청결에 동참하게 하고 있다.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알리기와 부대행사는 천안홍타령축제가 오하라마츠리에 비하여 월등히 많다. 이러한 많음이 천안홍타령축제가 때로는 종합축제적인 성격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축제의 기능을 신명나는 일탈의 공간을 만끽하는 것 이외에 또한 축제가 가져오는 부가가치 즉 경제적 수익의 창출과 다양한 지역문화의 총체적 역량을 보여주는 문화적 가치까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즉 방문객과 지역문화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역의 특산물 등의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일축제운영현장의 비교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오하라마츠리는 축제 운영에 있어서 유사축제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효과를 주어 방문객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춤의 연행에서 천안홍타령축제의 경우 경연위주로 전문성의 비중이 높아 축제를 방문한 많은 이들이 춤을 몸으로 느끼기에는 부족하다. 오하라마츠리의 경우 춤을 추는 것은 겨루기 위함이 아니라 참여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춤이 좋아서 춤을 추는 것이고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것이다. 오하라마츠리의 경우 연합춤(総踊り) 행렬(連)의 참가는 춤의 전문가도 있지만 많은 경우 비전문가이다. 비전문가인 시민을 대상으로 춤의 교육과 연습도 가고시마 시내 전 지역에서 축제시작 두세 달 전부터 다양하게 이루어져 많은 시민들이 미리부터 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또 춤을 추며 즐거워한다. 또한 축제날 춤을 추는 장소가 모두가 함께 모여 어우러질 수 있는 거리 한곳이라는 것은 지역

민들을 일체화시키고 춤의 재미를 흠뻑 느끼게 하는데 유리하다 생각한다.

축제의 추진체제에서도 동네(町)의 대표가 오하라마츠리진흥회 임원의 이사로서 참여하고 있다. 축제의 추진체제가 관(官)중심이 아니라 관(官)과 지역민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춤의 전문가가 뿐만 아니라 동네(町)의 평범한 지역주민들도 축제의 주요 구성원이 되는 요인이다.

이러한 전략은 일차적으로 춤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고 또한 시민도 축제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준다. 이들 지역민들은 거리퍼레이드의 춤의 열기 속에 자율적, 적극적으로 빠져 함께 즐기고 또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일상의 삶속에서 일탈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현대축제에서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4. 맺음말

천안홍타령축제와 가고시마의 오하라마츠리는 그 연혁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춤이라는 공통주제를 지니고 있다. 비언어적인 매체를 사용하는 춤은 축제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신명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천안홍타령축제는 축제에 참여한 이들이 춤을 통하여 축제의 본질인 카오스적인 해방감을 느끼며 방문객들이 한데 어우러져 마음껏 자유를 발산하는 공간과 시간의 마련이라는 측면은 오하라마츠리에 비하여 부족하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은 축제의 중요 요소이다. 축제는 전문가들을 위한 경연만이 아니라 축제를 통하여 일탈의 경험을 해보고 많은 이들이 재미를 느끼는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축제를 통하여 방문객과 지역민들에게 지역문화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전략은 오하라마츠리가 천안홍타령 축제에 비하여 부족하다.

천안홍타령축제에서 시행되는 퍼레이드 형식의 거리축제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축제의 모습이다. 그러나 퍼레이드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공연 행사장에서도 춤의 대중성과 전문성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보완되었으면 한다. 이리되면 천안홍타령축제는 축제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일탈과 흥겨움 그리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더욱 확대된다. 그러면 천안은 흥겨운 춤의 고장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되고 천안홍타령축제 방문객들은 춤을 통하여 일탈의 시간을 즐기며 현재의 삶의 모습이 더욱 더 윤택해지리라 생각된다.

【参考文献】

- 김양주(1999), 「마츠리와 지역사회, 지역활성화」: 일본의 ‘요사코이’ 예를 중심으로, 『축제, 민주주의, 지역활성화』 새길
- (2004), 『축제의 역동성과 현대일본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민병호외(2000), 「지역축제의 서비스품질 개발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제4권 제1호
- 유기준(2003), 「백제문화제반세기의 현황과 평가에 관한 연구」, 『백제문화』 제32집
- (2004), 「지역문화축제방문객의 만족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제6권 제3호
- (2004), 「백제문화콘텐츠와 지역문화축제의 연계 활용 방안 고찰」, 『백제문화』 제33집
- (2007), 「日・韓祭り文化の比較研究」, 『일본연구』제32호, 한국의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 윤광봉(2000), 「한국 축제의 역사」, 『韓國祝祭의 理論과 現場』, 月印
- 윤병섭외(2002), 「한·일간 축제의 현상에 관한 비교연구」, 『문화관광연구』 제4권 제2호, 한국문화관광학회
- 이덕구(2004), 「천안흥타령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일본 ‘요사코이마츠리’의 특징분석을 통하여」, 『문화관광연구』 제6권 제2호, 한국문화관광학회
- 최관(2000), 『일본문화의 이해』, 학문사
- 최인학(1996), 「일본의 마츠리와 한국의 축제 비교」, 『일본연구』 제1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 천안대학교 전략경영연구소(2003), 『천안흥타령축제 2003 조사연구』
-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2007), 『천안흥타령축제 2007 종합세부추진계획』
- 천안시(2007), 『천안흥타령축제2007평가보고서』
- 芦田徹郎(2001), 『祭りと宗教の 現在社会学』, 世界思想史.
- 折口信夫(2002), 『古代研究1, 祭りの発生』, 中央公論新社.
- 吉野裕子(1990), 『祭りの 原理』, 耕友社
- 佐藤和彦編(2006), 『祭りの事典』, 東京堂出版.
- 宮田登(1992), 『祭りの現代的意味』, 比較民俗学』 9
- 日本国際観光振興会(1998), 『観光事典』
- 星野紘監修(2006), 『日本の祭り文化事典』, 東京書籍
- www.dancefestival.or.kr
- www.city.kagoshima.lg.jp
- www.ojanse.com

要 旨

天安 fantasia 祝祭と鹿児島のおはら祭りは、沿革においては差があるが、踊りという共通の主題を持っている。非言語的な媒体を使う踊りは、祭りの本質、つまり神命を表現できる一番よい素材なのである。

踊りを通じて祭りの本質である解放感を味わい、訪問客が交じり合い、存分に自由を発散する時間と空間の備えといった面では、天安 fantasia 祝祭が鹿児島のおはら祭りに比べて不足している。このような時間と空間の確保は祝祭の開催において重要な要素であると言える。それは祭りというのが専門家のための競演だけではなく、多くの人々が祭りを通じて逸脱の経験を楽しむ空間で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である。

ところで、祝祭を通じて訪問客と地域の人々にさまざまな地域文化を紹介するための展示、また体験プログラムの運営、そして地域経済の活性化という側面での積極的な弘報と案内戦略においては、鹿児島のおはら祭りの方が天安 fantasia 祝祭より遅れていると言える。

天安 fantasia 祝祭で行われるパレード形式の街頭祭りは私たちには慣れない様子ではある。しかし、パレードでややもすれば疎外されやすい多くの訪問客が参加できるような対策を整え、公演場所でも踊りの大衆性と専門性の調和を図る対策が補完できれば、天安 fantasia 祝祭は祭りの一番本質的な要素である逸脱と興、そして面白さが楽しめる空間になると思われる。これを実現すると、天安は楽しい踊りのある地域というイメージが広がり、天安 fantasia 祭りの訪問客は踊りを通じて、現在の文化的生活の営みをいっそう豊かなものにできる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 天安 fantasia 祝祭、鹿児島のおはら祭り、逸脱、街頭祭り、興、踊り

투 고 : 2008. 5. 31
1차 심사 : 2008. 6. 14
2차 심사 : 2008. 6. 28

住 所 : (314-701)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공주대학교 관광학부

電 話 : 041-850-8671

e-mail : kjyou@kongju.ac.kr